

---

#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 수시 모집 논술

---

### - 인문사회계열Ⅱ 문제지 -

| 대학 | 학과(학부) | 수험 번호 | 성명 |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5. 답안지의 첫째 줄부터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6.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7.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8.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9. 답안은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에만 작성하십시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인문사회계열Ⅱ]

□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한 문화의 성원으로서, 한 언어의 화자로서, 우리는 어떤 암묵적 분류를 배우고 이 분류가 세계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그런 범주들이 사회마다 다르므로, 각 문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지만 문화마다 독특한 합의를 보여 주는 것이다.

가령, 에스키모 어에는 눈에 관한 낱말이 많다. 에스키모 어는 영어로는 한 단어인 '눈(snow)'을 네 가지 다른 단어, 즉 땅 위의 눈(anut), 내리는 눈(quana), 바람에 날리는 눈(piqsirpoq), 바람에 날려 쌓이는 눈(quiunqsuq)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아프리카 사막의 유목민들은 낙타에 관해 10개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영어의 'rice'에 해당하는 개념에 대해 우리말은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

그렇다면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일반적인 견해는 언어가 사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은 물과 같은 것이고 언어는 그릇과 같은 것이어서 물그릇에 따라 물의 모양이 달라지듯이 언어의 형태에 따라 정신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나) 피다한 사람들은 강을 이용해 방향을 지시한다. 내가 피다한 사람들을 데리고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이들이 맨 처음 묻는 것은 "강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자신들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알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왼손과 오른손과 같은 기초적인 말들이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막스 프랑크 심리 언어학 연구소 스티븐 레빈슨 박사의 논문을 읽고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인간이 방향을 지시하는 방법에는 내심적 방향 지시와 외심적 방향 지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내심적 방향 지시란 왼쪽/오른쪽과 같이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문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반면 외심적인 방향 지시는 외부의 대상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피다한을 비롯한 몇몇 소수의 문화에서 사용한다.

대부분의 언어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내심적 방향 지시 용어가 주로 사용되지만, 외심적 방향 지시 용어 역시 존재한다. 예컨대 우리는 "가다가 길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틀어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국은 멕시코 북쪽에 있다"와 같이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 지시 체계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오랜 시간 함께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 몸을 기준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언어에 존재하지만 유독 피다한 말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예컨대 피다한 사람들은 '좌향좌', '직진', '우회전'과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오히려 피다한 사람들은 방향을 전달할 때 전혀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 이러한 방향 지시 체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방향을 잡는 기준으로 삼는 강과 늘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이다.

**(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담론은 이성적이고 논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삶과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담론 윤리에서는 윤리적 행위 기반을 사람들의 언어 공동체, 즉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찾는다.

“우리는 우리가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담론 윤리의 기본 정신이다. 즉,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담론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담론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한 사회의 발전은 서로의 주장을 제대로 묻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는 담론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서로 대화할 준비와 성실하게 근거를 대려고 하는 자세이다. 또한, 이때 요구되는 인간의 이성이란 서로의 주장을 논증함으로써 ‘나’와 ‘너’ 사이의 이견을 좁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성이다. 즉, 대화하는 사람끼리는 언제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참된 내용을 말해야 하며, 이 말을 지키겠다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사람끼리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담론 윤리의 기본 정신이다.

이처럼 담론 윤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생활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담론 윤리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의사소통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담론 윤리는 인간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윤리 문제에 대한 이성적 해결, 보편적 윤리가 가능함을 주장한다.

**(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어느 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견해이다.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태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악보를 보고 그 노래를 흥얼거려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때 처음 보는 악보일 경우, 우리는 노랫말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랄라랄라’ 한다든지 ‘으응으응’ 한다든지 하면서 노랫가락을 따라 흥얼거린다. 이 흥얼거림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는 ‘도미솔도 도솔미도’ 하면서 음계 이름에 따라 또 노랫가락을 연습한다. 그런 다음에야 노랫말에 따라 노래를 부른다. 말하자면 음악이 말과 일치되는 것은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를 때에 가서야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작곡가가 노래를 짓는 작업을 상상해 보자. 그가 머릿속에 떠올린 악상은 결코 말과는 관계가 없는 멜로디일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조각가의 작업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어떤 조각가가 이순신 장군의 흉상을 조각한다고 가정하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었을 법한 모습을 상상하며 조각가는 눈과 코와 입을 매만진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일일이 “아, 여기를 조금 깎아 내야 되겠구나.”, “아, 여기는 좀 도톰해야 되겠는데.” 같은 말로 표현하면서 그런 작업을 할 것인가? 아니,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말로 정리할 만큼 손놀림에 여유를 둘 것인가? 아마도 조각가의 생각이 바로 손끝에 있다가 그 생각이 번개처럼 손놀림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는 작가의 생각이 말로 바뀔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전혀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 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하였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하였던 나는 뜻밖의 일을 경험하였다. 티피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처음에 나는 아마도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축제에 잘난 체하는 이방인이 침입한 것을 부정 타는 일로 여길 법도 하였다. 아니면 나와 동행한 백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라코타 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 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 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았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바)**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뉴스를 접하며 다양한 프레임에 노출된다. 뉴스 프레임은 어떤 이슈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 시각 틀로서 다양한 시각들 사이에서 언론에 의해 선택되고 강조된다. 프레임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뉴스 프레임이 어떻게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연구는 ‘개념 접근성’에 기반한 설명과 ‘개념 적용성’에 기반한 설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개념 적용성’에 기반한 설명은, 주어진 자극에 대해 특정 개념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미 수용

자에게 주어진 자극의 특성에 잘 호응하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프라이스는 지식 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들어 프레임링 효과의 특성을 설명했다. 그는 프레임링 효과는 '개념 적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뉴스 수용자가 자신의 가치, 신념, 이념에 따라 주어진 뉴스 텍스트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념들을 동원해서 뉴스 텍스트를 이해하고, 계속되는 인지 과정에서도 그 개념을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지식 체계 내에서 어떤 개념은 주어진 뉴스 텍스트와 잘 호응하는데, 어떤 개념은 덜 호응한다. 그래서 프라이스는 프레임링 효과란 뉴스 텍스트의 속성과 상응해서 상호 작용하는 수용자의 사전 지식이 메시지의 인지, 해석, 평가, 판단 등과 같은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사)** 조지 오웰은 평생 동안 가난과 싸웠고, 질병으로 폐결핵을 앓았다. 42세에 아내를 잃었고 46세에 <1984>를 출간했다. 그로부터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아 1950년 1월, 심한 각혈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은,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불행 속에서 쓰인 마지막 책이다.

소설 <1984>에서 조지 오웰은 정교한 디테일로 미래 세계의 모습을 그린다. 체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빅 브라더의 얼굴이 모든 건물들의 벽에 걸려 펄럭이는 세계.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계. 체제가 선전하는 거짓을 철저히 내면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과거의 역사는 끊임없이 조작되고, 진실이 기록된 문서들은 '기억통' 속에서 재가 되는 세계. 고독감이나 사랑 같은 개인적인 감정들은 물론 감각까지 부인되는 세계.

흥미로운 것은 이 세계가 공식적으로 '신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good의 반대말은 bad가 아니라 un-good이며, splendid나 wonderful 같은 어휘들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제거된 뒤 plus-good 또는 double-plus-good으로 대체된다. 극도로 단순화한 이 언어를 통해 체제는 인간의 사유를 제한하려 한다. '다르게' 사유하고 느끼려 해도 되고 운신할 언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다르게' 생각하려 애쓰는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로 글(일기)을 쓰는 행위—이 세계에서는 위중한 범죄다—라는 사실은, 물질이 공공연히 지배하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아)** 1970년대 미국에서 의제 설정 이론이 주목 받을 때, 유럽에서는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에 대하여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이론은 여론의 전개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침묵의 나선이란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견을 표명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침묵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들과 함께 타고 가는 열차 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토의를 할 경우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토론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침묵의 나선은 승자의 편에 서려는 욕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의견이 비판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개인을 침묵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수 의견은 대중 매체가 주도하는 여론에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핵심 논지에 나타난 '언어의 특성'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논지를 활용해 제시문 (마)에 나타난 '침묵으로 시작하는 인디언들의 대화 방식'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서술하고, 이러한 대화 방식이 제시문 (바)의 '프레이밍 효과'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사)와 (아)에서 '다양성이 훼손되는 방식'을 찾아 그 차이를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